

사람이 소중하다

2017. 05. 22(월)

정현종 시인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미래와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라며 방문객을 반가이 맞이하라고 한다.

논어에서도 “유봉 자원방래 불역낙호(有朋 自遠 方來 不亦樂乎)”라며
동지와의 만남을 기뻐했다.

또한 공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는 것은 소인이 아니라
군자의 길이라고 하면서 조직구성원들의 조직 내 화합이 제일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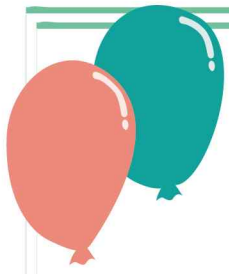
공자의 제자인 유자는 논어에서 ‘가까운 사람을 잃지 마라’라는
부실기친(不失其親)을 이야기했다.

여기서 보듯 사람이 소중하고 인재(人才)가 제일임이 틀림없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상사, 동료, 부하직원들이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듯 시간과 공간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동반자다.

하루하루 만남을 이어가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만 냉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이 많다.





소통의 수단은 e-mail이나 sns이기도 하지만 첫걸음은 바로 말이다.
말투란 말을 담는 그릇이다. 물을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세숫물로 보이기도 하고 먹는 물로 보이기도 한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함으로써
원만한 소통이 시작된다.

이렇듯 우리는 조직생활에서 소통과 협업을 하면서 사람다움을 느끼고 싶어 한다.
우리 회사는 사람냄새 나는 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다.

임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공동 성장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의 역량이 바로 회사 성장의 핵심역량이다.
임직원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회사에서는 신경을 쓰고,
임직원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와 도전을 이루어야 한다.

조직의 미래는 훌륭한 인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기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인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사는 늘 소통과 협업에 애로사항을 느끼며 성장을 한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로 구성된 회사라 할지라도 매끄러운 정보공유와
협력을 이루어가는 조직은 흔치 않다.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회사의 구성원이다.
사원부터 사장까지 모두가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소통과 협업'을
성장의 제1의 키워드로 삼아야 할 것이다.